

# 통계로 본 2025년 상반기 식품제조업 동향

박미성 | 김성희

- 한국농촌경제연구원 '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'은 식품산업 정보를 수집·가공·심층분석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『식품산업진흥법』에 의거하여 지정·운영되고 있음.
- 식품외식정보 웹진 2025년 제13호에서는 국내 식품제조업 관련 2025년 상반기(1~6월)의 주요 지표(거시경제, 출하 및 물가, 재고, 수출입, 식품산업 1~2분기 경기 현황 및 3분기 경기 전망) 등을 종합적으로 가공·분석하여 정리함.
- 분석 결과, 1) 2025년 1분기의 식품제조업의 실질 GDP는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, 가계의 실질 식품(음식료품 및 외식) 지출액은 감소함. 2) 2025년 상반기 출하지수는 대부분 업종에서 전년 동기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, 물가 부담 지속으로 실질 개선폭은 제한적임. 3) 2025년 상반기 식품제조업의 재고율은 100%를 초과하였으며, 2020년대 상반기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임. 4) 가공식품 수출액은 2024년의 상승세가 2025년 상반기에도 지속되어 역대 최고치를 갱신함. 5) 식품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하며 최근 5개년 중 최고수준을 유지함. 6) 2025년 3분기 식품산업 경기는 중규모 중심으로 상당수 업종에서 경기 개선을 기대하고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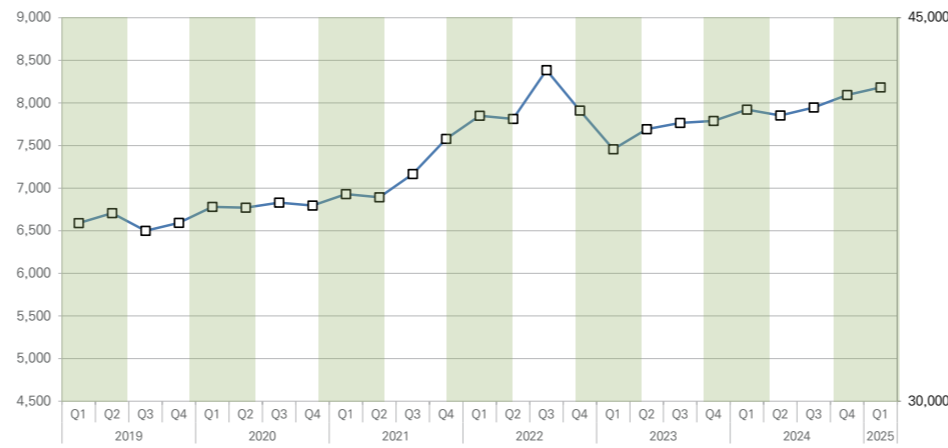
## 1. 2025년 1분기 식품산업 관련 거시지표

2025년 1분기 식품제조업 실질 GDP는 2024년 1분기 대비 증가하였으나, 동 기간 식품에 대한 실질 가계소비지출은 감소

- 2025년 1분기 식품제조업의 실질 GDP는 8.2조 원으로, 지난 해 동기(7.9조 원) 대비 3.3% 증가하였음.
  - 이는 전체 제조업 증가율(+0.4%)을 상회하는 수치로, 국내 소비 위축과 제반 비용 상승에 따른 원가 상승 부담에도 불구하고 실적 개선을 이룬 것으로 나타남.
  - 특히, 정부의 할당관세 적용, 식품소재 구입자금 지원 등 원가 부담 완화 정책과 더불어, 식품업계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노력이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됨.

### 식품제조업 분기별 실질 GDP 추이

단위 : 십억 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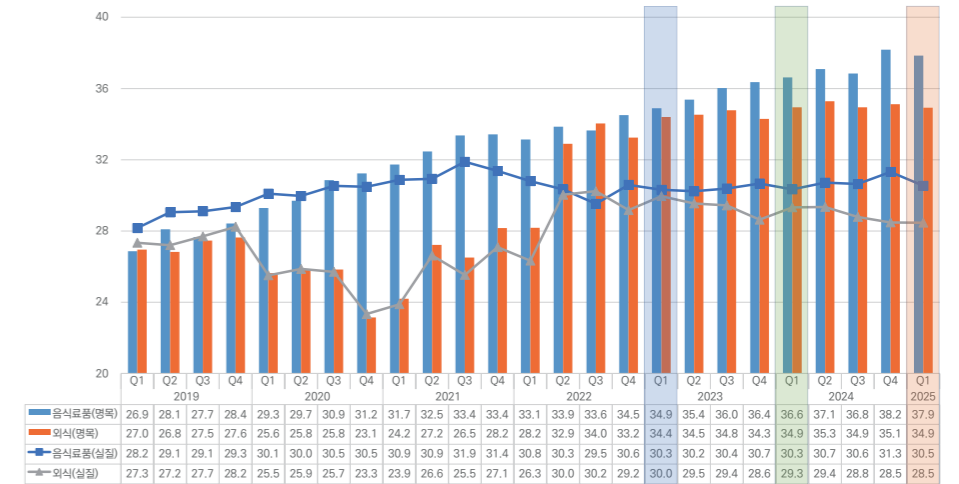


주: 분기별 실질 GDP는 계절조정 자료를 이용

자료: 한국은행, 「국민계정」, 2025 1/4, 2025.8.1., 경제활동별 GDP 및 GNI.

- 한편, 같은 기간 가계의 실질 식품(음식료품+외식) 지출액은 59.0조 원으로, 전년 동기(59.7조 원) 대비 1.1% 감소하였음. 이는 외식 부문 지출 감소 영향으로, 음식료품과 외식 간 소비 흐름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됨.
  - 음식료품에 대한 실질 지출액은 30.5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.7% 증가한 반면, 외식 부문의 실질 지출액은 28.5조 원으로 2.9% 감소함.
  - 이는 경기 위축 등으로 가계의 음식료품 소비는 유지된 반면, 외식 소비는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을 반영함. 가계에서는 필수 식품 중심으로 소비를 조정함.

### 음식료품 및 외식(음식/숙박)에 대한 분기별 가계소비지출(실질/명목)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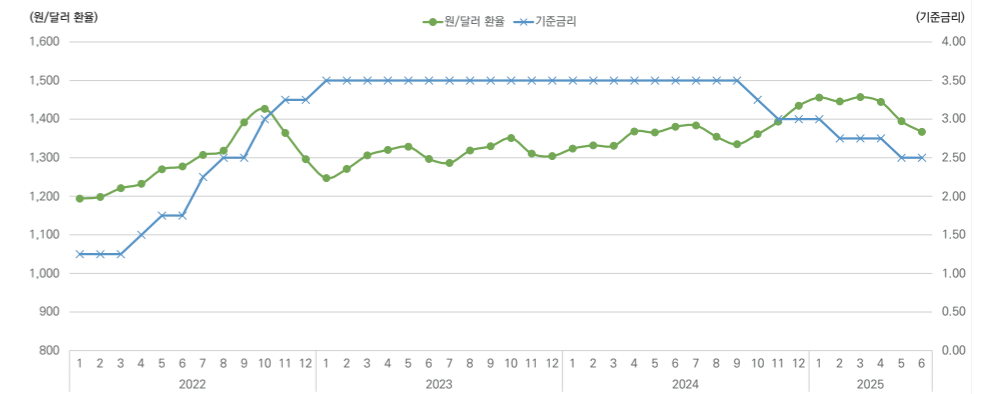


자료: 한국은행, 「국민계정」, 2025 1/4, 2025.8.1., 가계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.

- 원/달러 환율은 2024년 하반기부터 대내외 정세의 불안정성 심화로 인해 상승세를 보였으며, 2025년 1분기에는 1,452.8원으로 고점을 기록하였음. 이후 2분기에는 1,401.9원으로 하락 전환함.
  - 특히, 2025년 4월부터 환율이 빠르게 안정화되며 6월에는 1,367.0원까지 하락하였음.
  - 환율 하락은 원재료 수입 비용 절감 측면에서 식품업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, 수출 시 가격경쟁력 저하 등의 부정적 영향도 함께 우려됨.
    - 원/달러 환율: ('24년 4분기) 1,396.3 → ('25년 1분기) 1,452.8 → (2분기) 1,401.9
  - 한편, 국내 기준금리는 2024년 10월부터 점진적인 인하 기조로 전환되었으며, 2025년 5월 한 차례 추가 인하하여 2.50%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.
    - 금리: ('24년 10월) 3.00% → ('25년 2월) 2.75% → (5월) 2.50%

### 월별 대미 환율 및 기준금리 추이

단위 : 원/달러, %



자료: 한국은행, 「통화금융통계」, 20250731, 2025.8.1., 주요국 통화의 대원화환율; 한국은행, 「통화금융통계」, 20250429, 2025.8.1.,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여수신금리.

## 2. 식품제조업 업종별 출하 및 물가

2025년 상반기 식품제조업의 출하는 다수 업종에서 전년 동기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, 물가 부담 지속으로 실질 개선폭은 제한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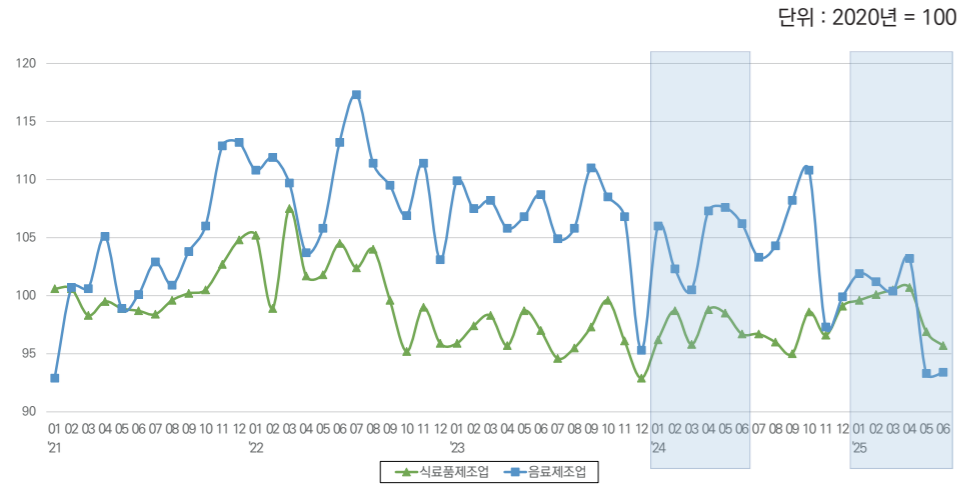
- 2025년 상반기 식품제조업(식료품+음료)의 출하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하였음. 이는 식료품제조업의 출하 증가로부터 기인함.

- 식료품제조업의 상반기 출하지수는 평균 99.0으로, 전년 동기(97.5) 대비 1.5% 증가함. 반면, 음료제조업은 전반적으로 출하 감소세가 이어졌으며, 2025년 4월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여 상반기 출하지수는 평균 98.9로 집계됨. 이는 전년 동기(105.0) 대비 5.8% 감소한 수치임.

- 월별 흐름을 보면 두 업종 모두 2024년 11월 급격한 출하 감소 이후 회복세를 나타냈으나, 2025년 5월에는 다시 한 차례 출하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음. 식료품제조업은 상반기 동안 점진적 회복 흐름을 보이다 5월 이후 다소 둔화한 반면, 음료 제조업은 상반기 중 출하가 점차 위축되다가 5월 이후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냄.

- 식료품제조업 출하지수: ('25년 1분기) 95.2 (2분기) 96.9
- 음료제조업 출하지수: ('25년 1분기) 101.2, (2분기) 96.6

### ■ 식료품제조업과 음료제조업 월별 출하지수 추이



주 1) 2025년 5-6월 수치는 잠정치로, 추후 통계 확정 시 일부 정정될 수 있음.  
2) 출하지수는 대표품목(490개)의 금액조사 후 각 품목에 대해 생산자물가지수를 환가하여 물량 단위로 작성됨.  
자료: 통계청, 「공업제조업동향조사」, 2025.6, 2025.8.1., 시도/산업별 광공업생산지수.

- 2025년 상반기 식료품 및 음료제조업의 생산자물가는 전년 대비 상승세를 보이며, 전반적인 물가 오름세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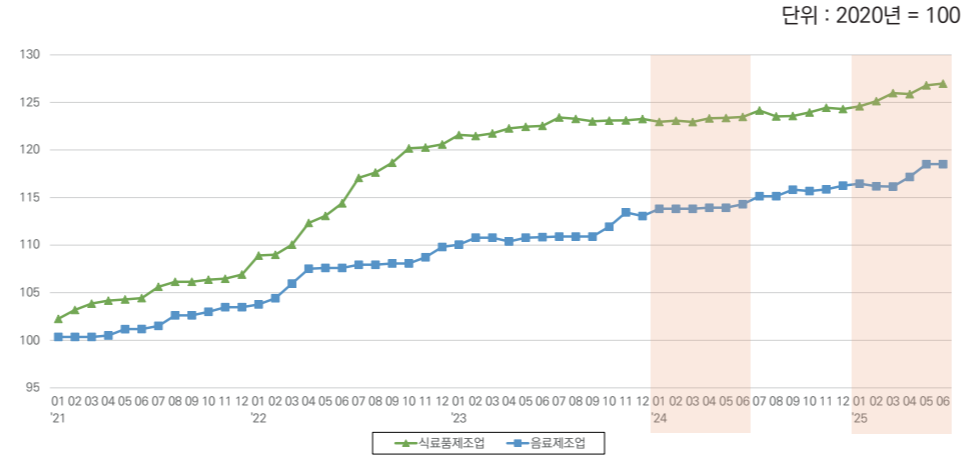
- 식료품제조업의 상반기 생산자물가지수는 125.9로, 전년 동기(123.2) 대비 2.2% 상승하였으며, 동 기간 음료제조업은 117.2를 보이며 전년 동기(113.9) 대비 2.8% 상승함.

- 식료품제조업의 상반기 생산자물가지수는 125.9로, 전년 동기(123.2) 대비 2.2% 상승하였으며, 동 기간 음료제조업은 117.2를 보이며 전년 동기(113.9) 대비 2.8% 상승함.

- 이는 배추(2024년 상반기 대비 16.2% 상승), 돼지고기(10.1%), 달걀(4.9%) 등 주요 농축산물 가격 상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.

- 식료품제조업 생산자물가지수: ('25년 1분기) 125.2 → (2분기) 126.6
- 음료제조업 생산자물가지수: ('25년 1분기) 116.3 → (2분기) 118.1

### ■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 생산자물가지수 월별 추이



자료: 한국은행, 「생산자물가지조사」, 2025.6., 2025.8.1., 생산자물가지수(기본분류).

- 2025년 상반기에는 대부분 업종에서 출하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
- 업종별로는 유지(6.5%), 곡물가공 및 전분(4.4%), 육류가공(2.9%), 기타식품(2.5%) 등의 순으로 증가 폭이 컸음. 반면, 음료제조업은 알콜음료와 비알콜음료의 출하가 각각 3.9%, 7.0% 감소함.

- 유지류의 출하 확대는 상반기 국제유가 안정화 및 옥수수, 콩 등 주요 원재료의 국제가격이 지난해보다 안정된 것이 출하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.

- 곡물가공 및 전분제품의 경우 간편식(HMR) 시장의 지속 성장과 맞물려 떡볶이·냉동김밥 등 쌀 기반 가공식품에 대한 국내외 수요가 증가하며 출하가 확대된 것으로 보임.

### ■ 2025년 상반기 업종별 출하지표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

단위 : %

업종명(축약 업종명)	출하지수	생산자물가지수
식료품제조업	1.5	2.2
도축,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(육류가공)	2.9	-0.2
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(수산물가공)	-1.7	8.9
과실,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(과·채가공)	-3.2	3.2
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(유지)	6.5	-4.0
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(낙농품)	-0.1	3.3
곡물가공품,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(곡물가공및전분)	4.4	-0.8
기타 식품 제조업(기타식품)	2.5	2.9
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(사료및조제식품)	-1.4	-0.7
음료제조업	-5.8	2.8
알콜음료 제조업(알콜음료)	-3.9	0.5
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(비알콜음료)	-7.0	4.8

주 1) 기타식품에는 떡·빵·과자류, 면류, 조미료 및 첨가물, 건강보조식품, 도시락 등이 포함됨.

2) 생산자물가지수는 출하지수의 산업 분류와 유사하게 적용하여 계산함.

자료: 통계청, 「공업제조업동향조사」, 2025.6., 2025.8.1., 시도/산업분류별 주요지표; 한국은행, 「생산자물가지조사」, 2025.6., 2025.8.1., 생산자물가지수.

## 3. 식품제조업의 재고 현황

2025년 상반기 식료품제조업 및 음료제조업의 재고율 모두 100% 초과, 2020년대 상반기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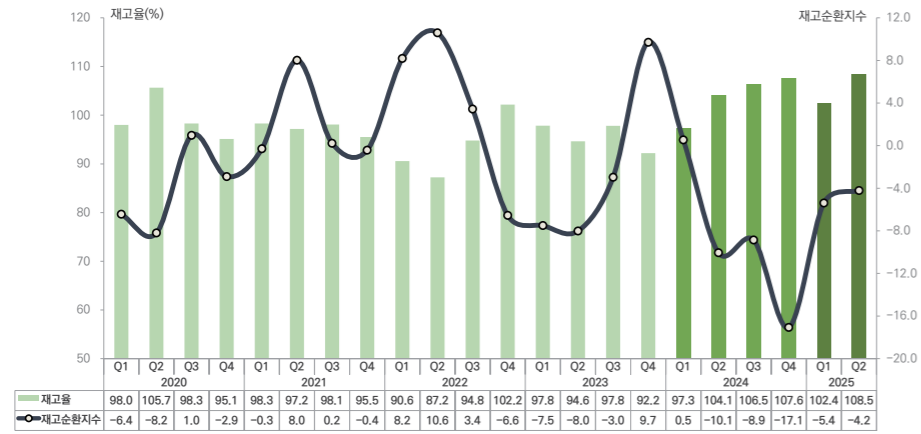
- 2025년 상반기 식료품제조업의 재고율은 100%를 초과하며, 전년 동기 대비 재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
- 상반기 평균 재고율은 105.4%로, 전년 동기(100.7%) 대비 4.7%p 상승하며 2020년대 들어 상반기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. 또한 분기별로 보면, 1분기(102.4%)에서 2분기(108.5%)로 상승하면서, 2024년 하반기 평균(107.1%)과 비교해도 소폭 증가한 수준임.

- 2025년 상반기 식료품제조업의 재고순환지수는 -4.8로 재고 증가율이 출하 증가율을 상회한 것으로 분석됨. 다만, 2024년 하반기(-13.0)와 비교하면 재고와 출하 간 격차는 다소 완화된 양상을 보임.

- 재고율: ('24년 상반기) 100.7% → (하반기) 107.1% → ('25년 상반기) 105.4%
- 재고순환지수: ('24년 상반기) -4.8 → (하반기) -13.0 → ('25년 상반기) -4.8

### Ⅰ 식료품제조업 분기별 재고율과 재고순환지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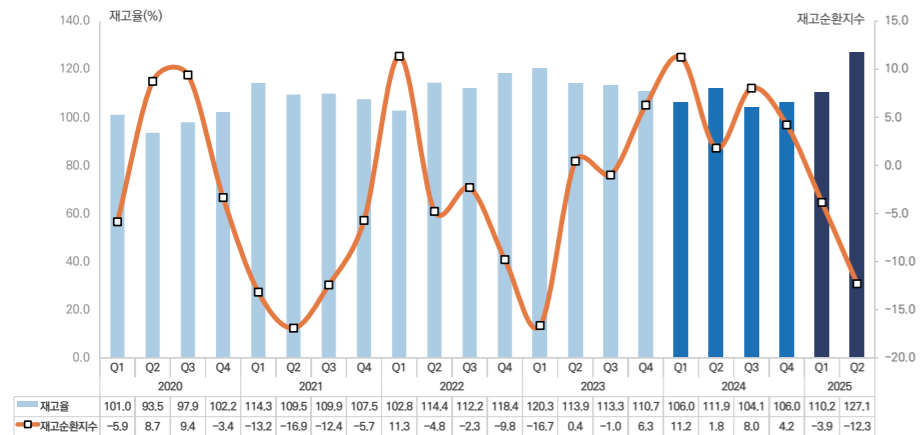


주 1) 재고율 = (재고량 / 출하량)× 100  
 2) 재고순환지수 = 전년 동기 대비 출하증감률 - 전년 동기 대비 재고증감률  
 3) 2025년 2분기 수치는 잠정치로, 추후 통계 확정 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
 자료: 통계청, 「광업제조업동향조사」, 2025.6., 2025.8.1., 시도/산업별 광공업생산지수.

● 음료제조업의 재고율 또한 100%를 상회하였으며,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더욱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.

- 상반기 평균 재고율은 118.7%로, 전년 동기(108.9%) 대비 9.7%p 상승하였으며, 분기별로도 1분기 110.2%, 2분기 127.1%를 기록하며 2020년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함.
- 재고순환지수는 -8.1로, 2024년 하반기(6.1) 이후 다시 음(-)의 영역으로 전환됨. 이는 제품 출하 증가율보다 재고 증가율이 더 높았음을 의미함.
  - 재고율: ('24년 상반기) 108.9% → (하반기) 105.1% → ('25년 상반기) 118.7%
  - 재고순환지수: ('24년 상반기) 6.5 → (하반기) 6.1 → ('25년 상반기) -8.1

### Ⅰ 음료제조업 분기별 재고율과 재고순환지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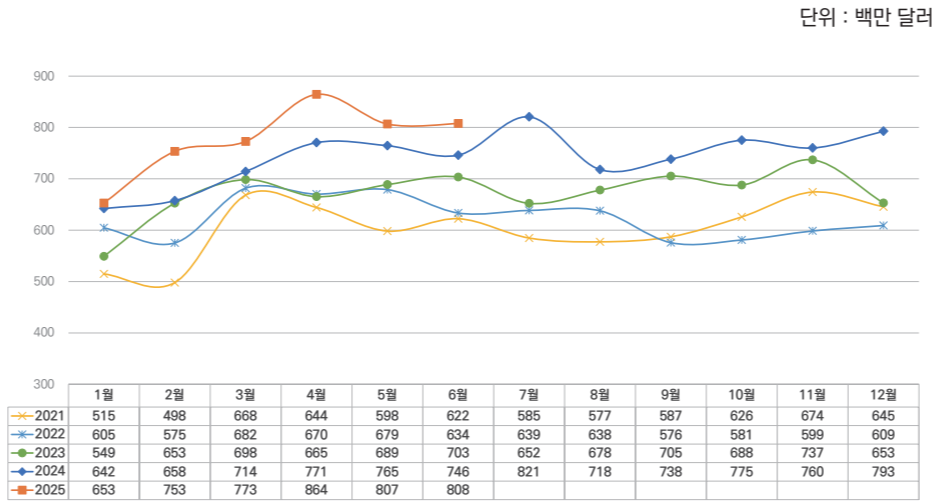
주 1) 재고율 = (재고량 / 출하량)× 100  
 2) 재고순환지수 = 전년 동기 대비 출하증감률 - 전년 동기 대비 재고증감률  
 3) 2025년 2분기 수치는 잠정치로, 추후 통계 확정 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
 자료: 통계청, 「광업제조업동향조사」, 2025.6., 2025.8.1., 시도/산업별 광공업생산지수.

## 4. 가공식품 수출입 동향

수출환경 불확실성 고조에도 불구하고, 수출 실적은 역대 최고치 갱신

- 2025년 상반기 가공식품 수출액은 46.6억 달러로, 전년 동기(43.0억 달러) 대비 8.4% 증가하며 역대 상반기 최고 실적을 기록하였음.
  -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관세(10%) 시행 및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 등으로 수출 여건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달성된 실적으로, 식품산업의 수출 경쟁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줌.
  - 주요 수출 품목 중에서는 곡물 및 곡분 제조품이 13.2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, 이어서 조제 식료품(9.5억 달러), 담배 및 제조담배 대용물(5.6억 달러), 음료·주류·식초류(5.5억 달러) 등의 순으로 나타남.
  - 수출 증가율이 두드러진 품목으로는 식용 유지가 전년 동기 대비 144.7% 증가하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함. 그 외 코코아 조제품(61.6%), 곡물 및 곡분 조제품(13.6%), 조제 식료품(9.2%), 채소 및 과일 조제품(6.0%) 등의 증가율이 두드러졌음.

### Ⅰ 가공식품 월별 수출액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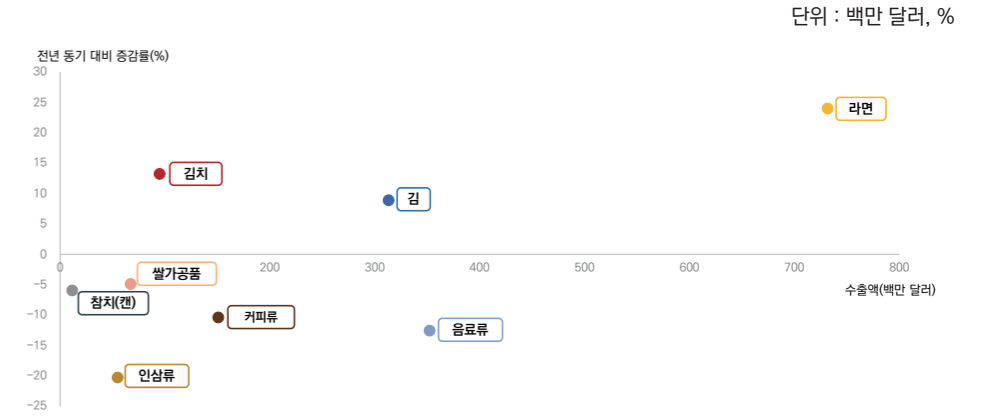


주: 가공식품 품목 범위는 HS코드 04, 11, 15~24로 정의  
 자료: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, 「수출입 실적」.

- 2025년 상반기 기준, 주요 수출 품목군의 수출 증감률을 살펴보면, 라면류(24.0%)의 수출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, 그 뒤를 이어 김치(13.2%), 김(8.9%) 등이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음. 반면, 인삼류는 전년 동기 대비 20.3% 감소하였고, 음료류(-12.6%), 참치캔(-6.0%), 쌀가공품(-4.9%) 등도 수출 감소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남.
  - 라면류의 수출 증가는 매운맛 제품의 글로벌 인기 확대, 매운 크림라면 등 다양한 라면 신제품에 대한 관심 증가, 유럽 및 아세안 등 신시장 개척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됨.

- 김치는 코로나19 유행 시기 면역력 강화 식품으로 주목을 받은 이후, K-Food 열풍과 함께 건강식·발효식품으로 인식되며 안정적인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임.

### Ⅰ 2025년 상반기 주요 수출 품목군별 수출액과 증가율



자료: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.

- 2025년 상반기 케이푸드 플러스(K-Food+)¹ 수출 누적액(잠정)은 66.7억 달러로, 전년 동기 대비 7.1% 증가함.
  - 이 중 농식품(K-Food)은 51.6억 달러, 농산업 분야(스마트팜, 농기자재, 동물약품 등)는 15.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.4%, 3.1% 증가함.
  - 상위 3개국(미국, 일본, 중국)에 대한 수출 집중률은 48.2%로,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여 0.4%p 증가하며 수출국 집중 경향이 소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.

### Ⅰ 2025년 상반기 기준 누적 농식품 수출실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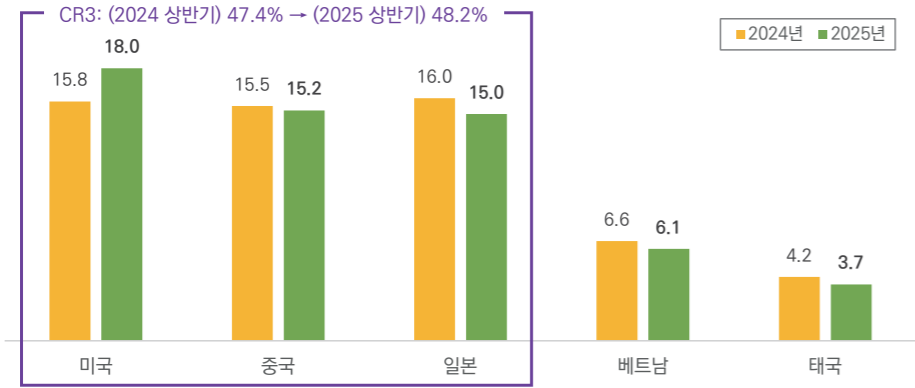
구분	2024년 상반기	2025년 상반기	증감률
K-Food+	6,221.4	6,665.8	7.1
농식품	4,765.2	5,163.7	8.4
- 신선식품	730.8	713.8	-2.3
- 가공식품	4,034.4	4,450.0	10.3
농산업	1,456.2	1,502.0	3.1
- 농기자재	1,333.8	1,400.2	5.0
- 스마트팜	67.2	44.0	-34.5
- 동물용의약품	110.8	167.2	51.0
- 펫푸드	79.8	80.1	0.3

주: 면세점 수출액을 포함한 금액으로,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.  
 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(2025.7.3.).

1) 케이푸드 플러스(K-Food+)란 농식품(K-Food)과 연관된 전후방 산업(Plus)을 함께 포함하는 개념으로, 신선·가공 농산물뿐만 아니라 스마트팜, 농기계, 농약·비료, 동물용 의약품, 펫푸드 등 관련 산업을 모두 포함함.

## 2025년 상반기 기준 수출 상위 5개 국가 및 수출집중률

단위 : 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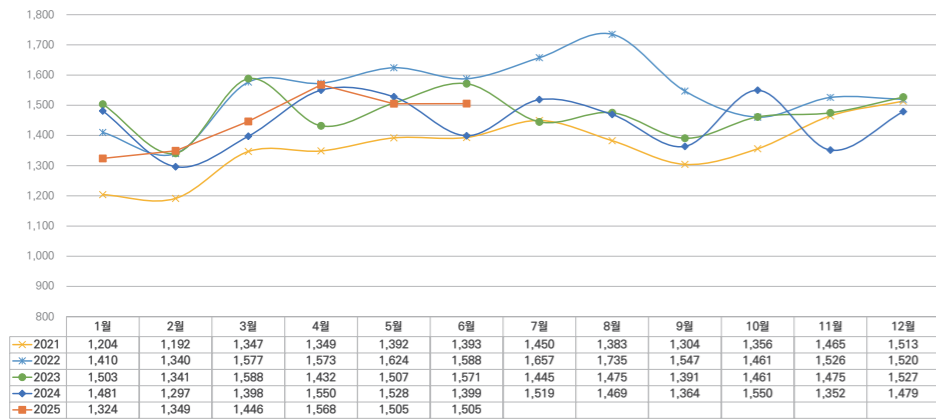


자료: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.

- 2025년 상반기 가공식품 수입액은 87.0억 달러로, 전년 동기(86.5억 달러) 대비 0.5% 증가하며 최근의 감소 흐름에서 증가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남. 다만, 이러한 증가에는 환율 변동의 영향이 일부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있음.
  - 수입액이 가장 큰 품목은 조제 식료품(13.9억 달러)이며, 그 뒤를 이어 식용 유지(13.0억 달러), 조제사료(11.1억 달러), 채소 및 과일 조제품(8.2억 달러) 등의 순으로 나타남.
  - 품목별 수입 증가율을 살펴보면, 코코아 조제품이 41.7%로 가장 높았으며, 이어서 식용 유지(32.4%), 낙농품(27.1%), 채소 및 과일 조제품(2.9%) 등의 순으로 나타남.

## 가공식품 월별 수입액 추이

단위 : 백만 달러



주: 가공식품 품목 범위는 HS코드 04, 11, 15~24로 정의

자료: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, 「수출입 실적」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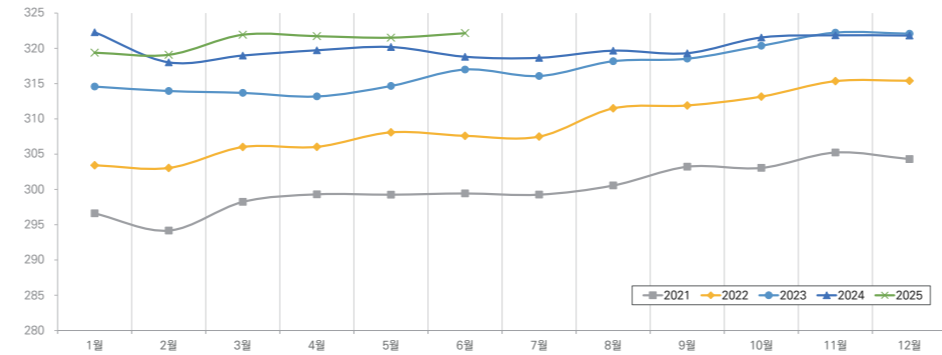
## 5. 식품산업 고용 동향

2025년 상반기 식품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대비 소폭 증가, 최근 5개년(2021~2025년) 중 최고 수준 유지

- 2025년 상반기 기준 식품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32만 1,000명으로, 전년 동기(31만 9,700명) 대비 0.4% 증가하였으며, 이는 최근 5년(2021~2025년) 중 가장 높은 수준임.
  - 그중 식료품제조업 부문에서는 30만 1,900명으로 전년 동기(30만 200명) 대비 0.6% 증가한 반면, 음료제조업은 1만 9,100명으로 전년 동기(1만 9,400명) 대비 1.8% 감소함.

## 최근 5년간 식품제조업 월별 취업자 수 추이

단위 : 천 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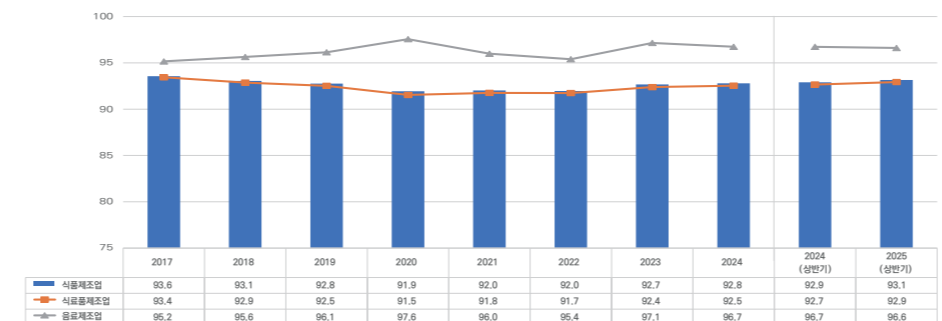


자료: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, 2025.6., 2025.8.1., 산업/규모별 고용.

- 2025년 상반기 기준 식품제조업 취업자의 상용직 비율은 93.1%로, 전년(92.8%) 대비 소폭 증가함.
  - 식료품제조업 부문의 상용근로자 비율은 92.9%로 전년 동기 대비 0.2%p 증가한 반면, 음료제조업은 96.6%로 전년 동기 대비 0.1%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.

## 식품제조업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 비율

단위 : 천 명



주: 사업체노동력조사는 1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체(50,000개)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통계로, 비임금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를 전수조사하는 전국사업체조사의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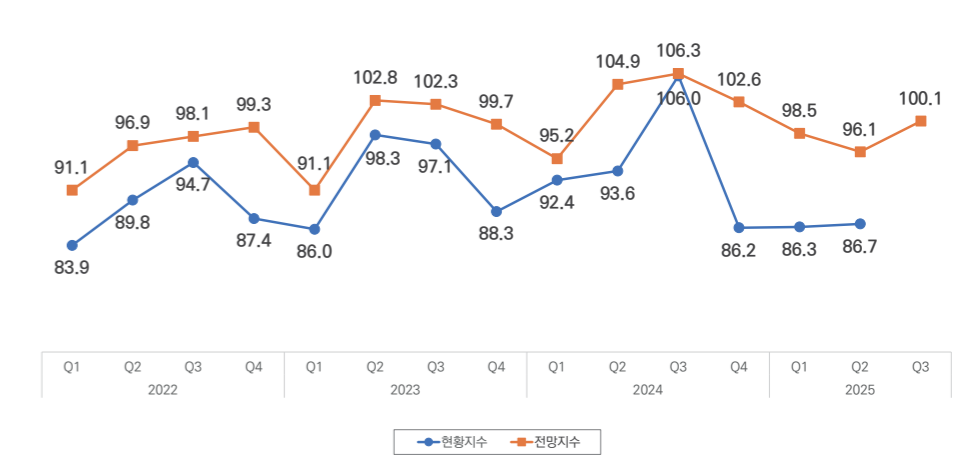
자료: 고용노동부, 「사업체노동력조사」, 2025.6., 2025.8.1., 산업/규모별 고용.

## 6. 식품제조업의 3분기 경기 전망

2025년 3분기 식품산업 경기는 중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상당수 업종에서 경기 개선을 기대

- 식품산업 경기동향조사 결과, 2025년 3분기 경기 전망지수는 100.1로 집계되며, 전 분기 대비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남.
  - 2025년 2분기 경기전반 현황지수는 86.7로, 전 분기(86.3)에 이어 기준선(100)을 하회하였으며, 이는 경기 악화를 체감하는 업체가 여전히 많음을 시사함.
  - 한편, 3분기 경기전반 전망지수는 100.1로 나타나며,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확대될 것으로 조사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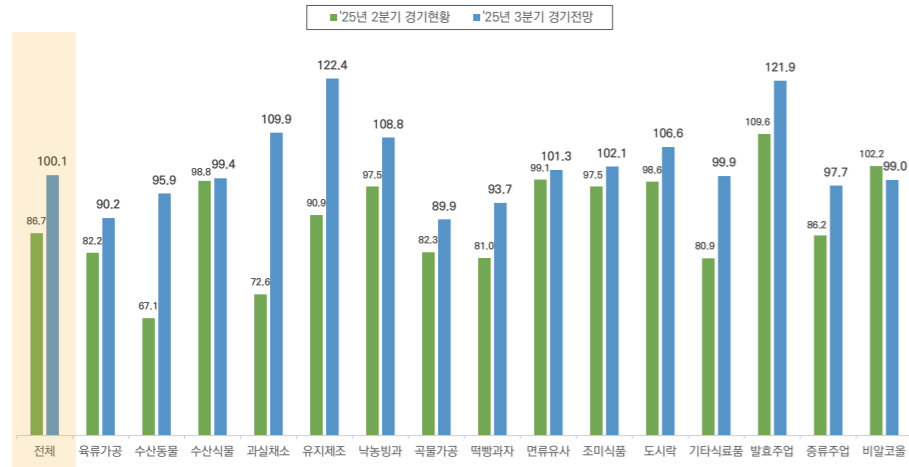
## 식품산업 경기동향 추이

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, 「식품산업경기동향조사」, 2025.2/4., 2025.8.1., 식품산업 경기 현황·전망지수 종합.

- 세부적으로, 상당수 업종(유지제조, 발효주업, 과일채소, 낙농빙과, 도시락 등)에서 2분기 대비 경기가 상대적으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.
  - 1분기에는 내수 부진 등 소비자의 소비량 감소, 환율 상승 등 국제적인 악화로 인한 경제 불안 등 대내외적 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대부분 업종에서 경기 악화를 체감한 것으로 조사됨.
  - 2025년 3분기는 원자재 수급안정 및 시기적 여건(축제, 행사 등)에 따른 거래·소비 증가 등 요인에 힘입어 다수 업종에서 경기 회복세 전환을 기대함.
    - 호전 전망 업종 : 유지제조(122.4), 발효주업(121.9), 과일채소(109.9), 낙농빙과(108.8), 도시락(106.6), 조미식품(102.1), 면류유사(101.3)

식품제조업 업종별 2025년 2분기 경기 현황 및 3분기 경기 전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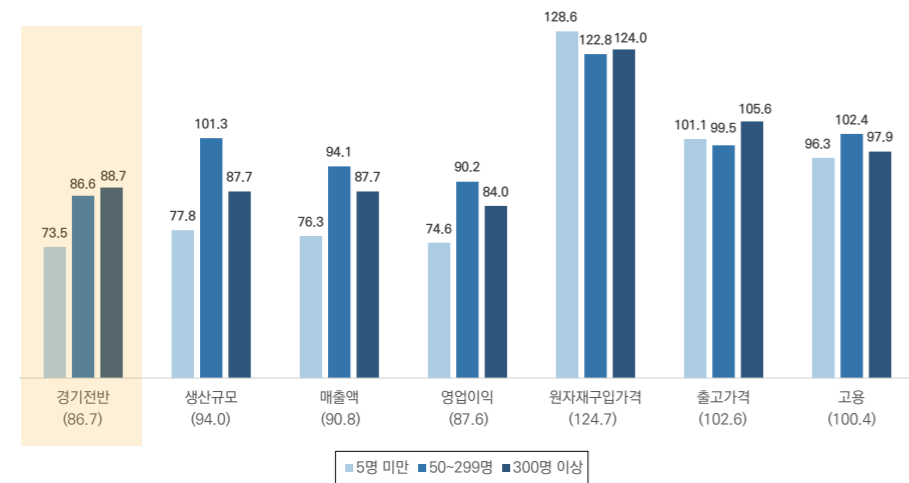
주: 2분기 현황은 전분기 대비, 3분기 경기 전망은 금분기 대비를 기준으로 함.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, 「식품산업경기동향조사」, 2025.2/4., 2025.8.1., 식품산업 부문별 현황 및 전망.

● 기업 규모별로 경기 회복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있었으나, 원자재 가격 상승은 모든 규모의 기업에서 높게 체감한 것으로 나타남.

- 종사자 수 50~299명의 중규모 기업은 2025년 3분기에 생산규모(105.0), 매출액(105.2) 및 고용(100.8) 등 부문의 개선 전망에 따라 전반적으로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였음. 반면, 5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과 3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은 매출 부진과 인력 수급 악화 등의 이유로 경기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응답함.
- 원자재 구입가격에 대해서는 모든 기업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함. 특히 소규모 기업(111.5)의 부담이 가장 클 것으로 나타난 반면, 대규모 기업(100.3)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응답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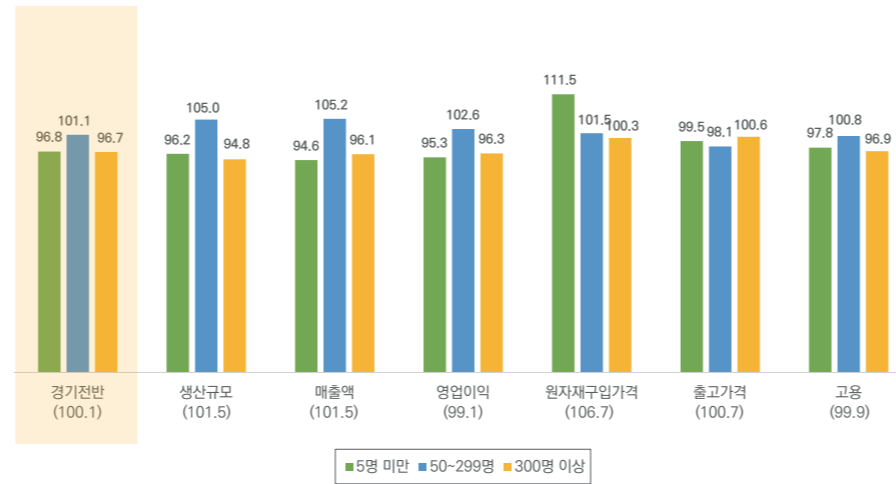
식품산업 규모별 2025년 2분기 경기 현황



주: 2분기 경기 현황은 전분기 대비를 기준으로 함.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, 「식품산업경기동향조사」, 2025.2/4., 2025.8.1., 식품산업 부문별 현황 및 전망.

식품산업 규모별 2025년 3분기 경기 전망



주: 3분기 경기 전망은 금분기 대비를 기준으로 함.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, 「식품산업경기동향조사」, 2025.3/4., 2025.8.1., 식품산업 부문별 현황 및 전망.

● 정부(농림축산식품부)에서는 할당관세 적용 확대, 원재료 구매자금 지원, 수입부가가치세 면세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식품업계의 원재료 구매 부담을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음.

- 식품기업의 원재료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5월 1일부터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기존 13개에서 21개 품목으로 확대하였음. 이 가운데, 커피원두와 코코아는 기존과 같이 유지되고, 계란가공품(4,000톤)이 신규로 포함됨.
- 이와 함께, 중소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총 1,256억 원(본예산 1,056억 원 + 추경 200억 원) 규모의 원재료 구매자금 지원 사업을 별도 추진하고 있으며, 수입부가가치세 면세 등 세제 및 금융 지원도 병행 중임.

저자 정보

- 박미성 연구위원(061-820-2362), mspark@krei.re.kr
- 김성희 연구원(061-820-2054), seongkim@krei.re.kr